

사회

‘실내온도 28도 이상 때만 냉방기 가동’ 지침따라 공무원도 민원인도 땀 ‘뻘뻘’

획일적 규정, 폭염엔 탄력 운영해야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명색이 공공기관 민원실인데, 너무 더워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다니가요.”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른 22일 오후 2시40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1층 민원실(663.21㎡).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후끈한 기운이 느껴졌다.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공무원 50여 명이 다다다 불어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흐르는 땀을 연방 닦아냈고, 민원인 눈치를 보며 부채질로 더위를 식히는 직원도 눈에 띄었다.

민원인 이모(33·북구 문흥동)씨가 “이렇게 더운 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담당 공무원은 “그래도 전날보다는 시원한 편”이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민원실 한쪽에 설치된 온도계의 눈금이 28.7도를 가리켰다. 에어컨(중앙제어시스템·16대)은 작동하지 않았다. 벽과 천장에 붙은 27대의 선풍기가 부지런히 돌고 있었지만, 기분 나쁜 열기만 뿜어져 나올 뿐이었다.

이같이 민원실이 ‘찜통’이 된 것은 지난 3월 중순 국무총리실·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달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때문이다. 지침(제24조·적정실내온도 준수)에는 공공건물에서 냉방설비를 가동할 때 실내온

도 기준을 28도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내온도 지침이 낮 최고기온의 급격한 상승이나 폭염주의보 발효 등과 같은 참기 힘든 무더위에 대한 예외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들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냉방기준을 2도 가량 낮춰주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광주일보가 광주시청·동구·서구·남구·북구청 등 공공기관 민원실 6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30분 이상 측정할 결과, 모두 28도~28.6도로 실내근무가 힘든 상황이었다.

반면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대부분 24~25도,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26도도 근무하기에 쾌적한 온도였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지만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은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청 민원실의 경우 주민들의 출입이 잦아 자연히 일반 사무실보다 온도가 1~2도 가량 높고, 타 부서보다 많은 서류 발급 등으로 인해 컴퓨터·복사기 등 사무기기에서 나오는 열기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북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인 사람도 아니냐. 민원실은 물론 사무실이 너무 덥고 갑갑해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며 “낮 기온이 30도



광주 북구청 공무원이 22일 오후 구청 민원실에서 권장 실내온도 준수를 위해 온도를 재고 있다. 온도는 29도에 가까웠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를 넘을 땐 실내온도 기준을 26도로 낮춰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지만 시청·구청 등은 정부 시책에 따

를 넘을 땐 실내온도 기준을 26도로 낮춰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지만 시청·구청 등은 정부 시책에 따

‘도망자’ 오현섭

경찰 비리 수사 피해 한 달째 도피

강릉서 CCTV 찍혀 체포 직전 잠적

‘여수시 경관조명 뇌물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현섭 전 여주시장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 달째 국내에서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오전 시장이 부산과 강원도 등에서 은신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오전 시장이 체포 직전 행적을 감춰 검거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초에 오전 시장이 강릉고속버스터미널에서 표를 사는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화면을 토대로 추적했지만,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오전 시장이 국내에서 은신처를 수시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행방을 찾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일 오전 시장의 도피를 도운 이모(57)씨를 구속하면서 오전 시장의 국내 도피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시장이 최근까지 부산과 강원도 등지에서 머무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신병이상이나 외국밀항 등의 가

능성이 낮다고 보고 검거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수경찰은 김모(여·59·구속) 전 여주시 국장으로 부터 1억원을 받아 여수시의회의원 10여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주모(67)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관광비자를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주씨가 지난 5월 30일로 비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친지와 지인 등을 통해 귀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주씨가 귀국하는 대로 여수시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야간경관 조영업체인 나이토피아 관계자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국장과 오전 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행적을 쫓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지방선거 때 금품 제공

민주 해남 당직자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2일 6·2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해남지역 당직자 문모(53)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군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면 지역 책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실제 돈을 뿌렸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해남 지역 면 책임자 10여명을 참고인 신병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군수후보 참모에 돈봉투

무안군 전 면장 조사

무안경찰은 22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무안군 전 면장 K(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찰자 조사 중이다. K씨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군수 후보자의 참모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자신이 면장으로 있던 지역의 건설업자 6명으로부터 수의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200~500만원을 받은 뒤 선거 참모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해녀 전복 슬쩍 ‘암체 잠수부’

경남 40대 2명, 여수시 1500만원 어치 훔쳐 팔아

TOD영상에 찍혀

경남 창원에 사는 전문 잠수부 임모(48)씨와 최모(43)씨,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새벽 1.5t급 고속 선외기를 타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를 나갔다. 여수지역 해녀들이 잠은 자연산 전복을 훔치기 위해서였다.

임씨 등은 목표지점인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항 200m 해상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솜씨로 자연산 전복 180kg을 배에 실었다. 이 섬에 사는 해녀 4명이 한 달여에 걸쳐 힘들게 채취한 고가의 전복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잠수장비를 동원해 순식간에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전복을 훔쳐 유유히 달아났다. 평소 해녀들이 채취한 전

복을 바꾸기에 담아 바닷물 속에 보관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전공(?)을 이용해 손쉽게 작업을 마친 두 사람은 ‘수확물’을 경남 통영으로 싣고 배모(여·47)씨 등 어패류상 2명에게 할값에 팔아넘겼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한 달여 만에 꼬리가 밟혔다. 해녀들의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이 범행 시간대 군부대에서 촬영한 TOD(열영상장비) 영상 및 항적 분석 작업 결과 두 사람이 탄 배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이다.

여수해경은 이날 임씨 등을 특수수검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임씨 계좌에 백색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이 입금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초등생 여아 납치?

광주 운암동서 신고 접수... 오인신고 가능성도

광주에서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납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11분 광주시 북구 운암동 J아파트 앞길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30대 후반의 남성에게 납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납치 신고는 9분 뒤인 오후 1시20분께 한 차례 더 접수됐다.

목격자 백모(27)씨는 경찰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한 남성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끌고 가는 것 같아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친구의 딸’이라고 답한 뒤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키 175~180cm가량의 이 남성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며,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어린이는 긴 머리에 안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납치 의심 장소는 북구 운암동 J아파트·용봉동 H아파트 담벼락 사이에만 왕복 2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경찰은 형사와 전 직원을 동원해 J아파트·H아파트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범행 현장에서 ‘-’자 형태의 길로 30m 떨어진 J아파트 상가 식당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분석한 결과, 화면에 범행(오후 1시~1시40분)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목격 장소를 세 차례나 반복한데다, CCTV 화면 분석결과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며 “아직까지 피해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단순한 오인신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진월동 연쇄 성추행범 공개수배

남부경찰, 20대 초·중반 남

‘광주시 남구 진월동 연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사진)를 공개수배했다.

광주남부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새벽 시간대 여성들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20대 초·중반 남성을 공개수배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당시 검은색 티셔츠와 빨대안경을 착용하고, 빨간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여성들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척하며 접근해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뒤 달아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민원 이상이며, 신고나 제보는 광주남부경찰(062-672-9977)로 하면 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080) 김종두



몸쓸 어른들

정신지체 여성생 성폭행 父子 등 9명 무더기 구속

정신지체를 앓는 여성생을 성폭행으로 성폭행한 충남 공주지역 남성 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공주경찰서는 정신지체가 있는 여성생에게 휴대전화 등을 사준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부자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여름부터 올해 2월까지 정신발육 지연 장애를 앓는 B양에게 음돈을 주거나 물품을 사준다는 자신의 집과 차량 등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B양이 다니는 학교와 성폭력상담소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A씨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4일 6명을 구속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두 9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부부싸움 40대 주부 자택에 불질러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주부가 경찰서행.

○22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전모(여·49)씨는 이날 새벽 0시45분께 광양시 모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르는 등 불을 내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혼자 있고 싶다”며 남편과 자녀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방화.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j4079@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 영희에 빠지다 | 이남점

| | |
|--------------------------|--------------------|
| 1관 마법사의계자(전제) | 1관 포화속으로 (12세) |
| 2관 마음이2 (전제) | 2관 나이트메이 (15세) |
| 3관 포화속으로(12세)/이클립스 (12세) | 3관 슈렉 포에버(더빙) (전제) |
| 4관 이클립스 (12세) | 4관 슈렉 포에버(3D) (전제) |
| 5관 평행세계관-천공의네파션 (전제) | 5관 슈렉 포에버(더빙) (전제) |
| 6관 나이트메이 (15세) | 6관 인셉션(12세) |
| 7관 슈렉 포에버(더빙)/포화속으로(12세) | 7관 인셉션(12세) |
| 8관 인셉션(12세) | 8관 이클립스 (12세) |
| 9관 이끼 (18세) | 9관 이클립스 (12세) |
| 10관 이끼 (18세) | 10관 마법사의계자(전제) |

항도시청·영화사청 |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최장 / www.joycbc.com
3D디지탈 상영! 상무점, 이남점 동시개봉!!

MEGABOX

| | |
|-----------------------|------|
| 1관 인셉션(12세) | 최고급관 |
| 2관 이끼(18세) | |
| 3관 이클립스 (12세) | |
| 4관 나이트메이(15세)/이끼(18세) | |
| 5관 이끼(18세) | |
| 6관 마음이2 (전제) | |
| 7관 이클립스 (12세) | |
| 8관 마법사의계자(전제) | |
| 9관 인셉션(12세) | |

영역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선요금 부과)

CINUS

| |
|------------------------|
| 1관 인셉션(12세) |
| 2관 이클립스 (12세) |
| 3관 슈렉 포에버 (전제)/이끼(18세) |
| 4관 마음이(전제)/나이트메이 (15세) |
| 5관 이끼(18세) |
| 6관 마법사의계자(전제) |
| 7관 인셉션(12세) |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